

정읍시, 치유농업 집중 육성 활력 찾는다

‘치유농업 아카데미’ 개설 운영
영농체험 활동 통해 건강 도모
프로그램 효과 공유 콘텐츠 개발

정읍시가 치유농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2019년 치유농업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는 등 농촌자원을 이용한 치유농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 5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농촌체험 농가와 치유농업에 관심 있는 농업인 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치유농업(Agro-Healing)은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된 영농체험 활동과 산출물을 활용해 인간의 심리적, 인지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활동이다. 최근 들어 일과 삶에 지친 많은 이들이 농촌을 찾으면서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단순 농촌체험이나 관광과 달리 농업 활동을 통해 건강과 사회적 치유를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일반체험보다 농장주의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는 분야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이러한 트렌드에



정읍시는 농촌체험 농가와 치유농업에 관심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아카데미 과정을 개최했다.

(정읍시 제공)

맞추어 올해 처음으로 치유농업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해 치유농업의 개념부터 운영 방식,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아카데미에서는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방법을 중심으로 이론교육을 8회 운영하고, 두 차례에 걸쳐 현장교육 실시하는 등 총 10회의 교

육을 진행했다. 시는 하반기에는 체험 농가에서 설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현장 모니터링하고 개선점을 찾아 보완하는 등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또 관계기관과 농업인을 주축으로 간담회를 갖고 치유 프로그램 효과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은 전북 지역 14개 시·군 체험 농가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를 위해 ‘Agro jobs’라는 연구를 만들고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익산시, 장애인고용공단과 ‘고용증진’ 힘 모은다

익산시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가 장애인 고용증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최근 익산 시청에서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영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협약은 장애인공단의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을 통해 익산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경력단절 여성, 다문화가족을 근로지원인 사업에 참여시켜 고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또 협약 체결을 계기로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의 활성화 및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중증장애인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 다문화가족의 고용증진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이란 핵심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의 도움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전주 ‘선미촌’ 유네스코 인증 첫 관문 통과

‘서노송 예술촌 프로젝트’ 지속가능발전교육 인증 획득

전주의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이 유네스코 인증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집창촌에서 문화예술 마을로 변신하는 ‘서노송 예술촌 프로젝트’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ESD) 공식 프로젝트 인증제 공모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유네스코 국제공모 심사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시는 한국위원회 인증제 공모에 ‘선미촌을 여성 인권과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선미촌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주제로 성 평등과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분야에 참여했다. 성매매가 이뤄지던 어둡고 음침했던 공간을 공권력에 의한 강제단속이나 집단 철거 방식이 아닌 주민참여에 기반한 문화예술 재생방식을 채택해 점진적으로 기능을 전환해 지속가능성, 협치, 참신성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2011년부터 한국의 다양한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 사례

를 발굴·인증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한국형 ESD 모델을 개발,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있다. 한국위원회가 지금까지 국내 96개 사업을 인증했으나 현재까지 국제 인증을 받은 국내 사례는 없어 전주시의 도전이 주목된다. 서노송 예술촌 프로젝트는 2016~2020년 총 74억원이 투입돼 선미촌을 포함한 서노송동 일대(11만㎡)의 골목과 도로정비,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 주민공동체 육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 이후 이곳에 일반음식점들이 생겨나고 상설문화예술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서노송동 일대 주택가에 형성된 선미촌에는 한때 400여명의 여성이 성매매 일을 했으나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가 금지되면서 종사자가 100여 명으로 급감했다가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금은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라북도 방언사전’ 나왔다

편찬 3년만에 1만1000여개 방언 수록

1만1000여개의 방언을 수록한 ‘전라북도 방언사전’이 편찬 시작 3년 만에 정식발간본으로 탄생했다. 전북도는 2017년과 2018년 2년에 걸친 전라북도 방언사전 편찬으로 시범집 필집이 완성된 이후 올해 드디어 전라북도 방언사전이 책자형태로 발간이 완료, 도청 홈페이지 및 네이버에 등재했다고 밝혔다. 사전은 부록을 포함해 총 1118페이지로 구성돼 있으며 전체 표제어 개수는 1만1086개에 달한다. 각 표제어별 구성은 표제어, 원어, 발음, 품사, 활용형, 대응어(표준어), 뜻풀이, 용례, 사용지역, 관련어, 해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사전의 오른쪽 측면에는 찾고자 하는 표제어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음별로 흡을 파두었다. 부록에는 해당 방언에 어떤 대응어(표준어)가 있는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대응어·표제어 찾아보기’가 있고, 저작권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례 출처표기를 해두었다.



전년의 역사와 문화를 담기위한 전라북도 방언사전 편찬사업의 첫 번째 발자취는 2016년 9월 전라북도 국어진흥위원회에서 논의됐다. 당시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장 소강준 교수(현, 국립국어원장)는 연구책임자로서 사업을 추진했으며, 현재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장 박기범 교수가 사업을 마무리했다. 사전은 도내 도서관,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관련 중앙기관, 전라북도 기초지자체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군, ‘가족센터’ 건립 예산 확보 박차

향토회관 인근 부지 마련 65억 투입 2022년 완공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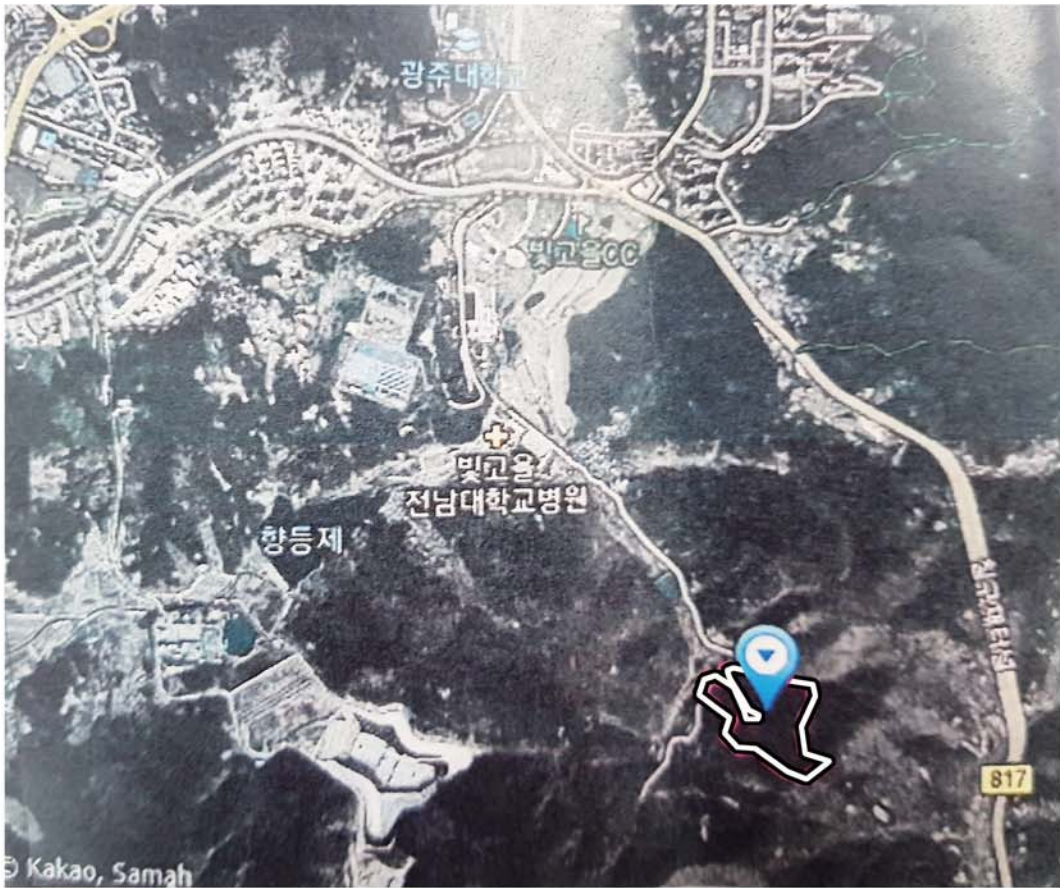
순창군이 지역중심의 보편적인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순창군에 따르면 군은 순창을 향토회관 인근을 예정부지로 선정하고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국비 등 사업비(65억원) 확보에 나섰다. 특히 지난 4월 정부가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수립 발표하면서 ‘복합화’를 강조함에 따라 군은 가족센터 내 도서관을 복합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에 조성할 가족센터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대폭 확대해 다문화가족 등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가족돌봄, 가족상담, 부모

교육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군은 전문인재 양성교육과 사회교육을 연계해 여성커뮤니티 공간을 포함한 통합지원서비스 거점시설로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설에는 맞벌이 가정 및 자녀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돌봄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와, 다목적 가족소통공간, 가족교육실과 상담실, 각종 프로그램 교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2월 여성단체협의회 임원들과 함께 여성가족부를 찾아 사업계획을 설명했으며 전라북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

군산해경 ‘선박검사 미이행’ 운항·조업 단속

군산해양경찰서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 또는 조업하는 선박에 대해 5일부터 9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 어선법과 선박안전법은 5t 미만 무동력어선 등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선박의 종류와 선령, 길이 등에 따라 1~3년마다 중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선박에 무허가 시설물을 추가로 장착하거나 구조를 임의대로 변경, 이를 숨긴 채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조업하는 선박 등이다. 해경은 단속에 앞서 8월 4일까지 선주들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벌인 뒤 특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덕남동, 임야 급매 장단기 최고 투자률

- 덕남동, 992㎡, 공유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3.3㎡당 15만원)

문의. 010-6834-7400